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언제부터가 예술의 거리에 빈 가게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임대’라는 글씨가 문에 붙여져 있곤 했다. 초록意在 사라진 고목처럼! 그런데 올해 더운 여름 어느 날이었다. 그런 빈 가게에 어떤 행위의 흔적들이 아주 야생적인 느낌으로 호기심을 자극했다. 오래된 마네킹이 설치 작품이 되고 간판을 대신해 예술가들이 점령한 흔적들이 낙서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시민의 눈에는 가게에서 장사는 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노는 곳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풍경이다. 나는 재밌는 변화를 감지했다. 공동 예술의 거리는 그동안 죽은 예술의 거리라고 말할 만큼 생동감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고목에서 싹이 돌아오고 재크의 콩나무가 자라는 마법이 일어나고 있다. 이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했다. 남궁윤 감독이다. ART STREET CACVAS NOMAD | THE MOVING MUSEUM 2025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공동1987’ 예술프로젝트다.

예술의 거리에 있는 빈집과 전통찻집, 음

움직이는 예술의 거리

식점, 카페들이 ‘노마드 캔버스-예술의 거리’ 움직이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과 주인들 사이에서 매파처럼 소개하고 연결해 카페의 창문에 화가의 터치가 들어가고 익숙한 공간을 예술로 낯설게 하여 무의식을 건드리는 창조적 거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움직인다. 시공간이! 실험음악가, 퍼포머, 영화감독, 여행자, 디제이, 현대무용가, 문화비평가 등 호기심이 많은 다양한 예술가들이 광주 예술의 거리에 나타나 비일상적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아닌 것 같은 음악, 그림이 아닌 것 같은 그림, 춤이 아닌 것 같은 춤을 추는 꼴들이고 정된 무대 밖에서 날개를 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이 비일상적인 상황에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그 반응은 호기심 가득한 질문이다. “뭐하는 거지?” “재밌다.” 예술에 다양성과 새로운 질문을 일으키며 실험의 장이 되고 있는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가 광주의 권위적인 예술계와 생태계를 창조적으로 흔들고 있다.

눈, 코, 입, 귀, 혀, 손짓, 몸짓, 발짓, 표정, 붓질... 퍼포먼스 예술은 온 감각을 동원해서 특정한 시공간을 창조하는 예술행위다.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그 호흡을 따라가며 창작의 과정에 관객이 참여한다. 늘 변화의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행위예술가들...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얼굴없이 꼬갈을 뒤

집어쓰고 굴뚝처럼 연기를 풀어내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만나다면, 그 존재의 움직임에 따라 그의 손짓과 발짓을 따라 해보시라! 그러면 한 예술가(임택준)의 창작 과정을 느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필자는 10월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드로잉퍼포먼스로 전시를 하는 두 명의 아티스트를 보러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에 갔다. 아티스트 임택준, 신도원의 드로잉 퍼포먼스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회화적이고 거침없는 붓질의 천진하고 걸려풀한 기호로 이루어진 신도원 작가의 수많은 드로잉이 빨래처럼 걸려있고 마치 디제이 파티장에 초대받은 느낌으로 설치된 드로잉 작품들과 영상작품들이 깜빡이는 천재들의 작업실로 변신한 은암미술관. 임택준, 신도원 두 예술가는 행위예술로 신들린듯 흥 드로잉을 시작했다. 종이와 캔버스는 물론 임택준 작가는 콧수염을 붙인 흰 마스크를 하고 흰 옷에 손가락마다 다른 색의 마가펜을 묶어서 흰 셔츠를 도화지 삼아 자신의 몸에 무의식적인 행위를 반복하며 낙서를 했다.

“아! 살아있구나!” 심장의 박동 소리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퍼포먼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흥에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마지막에 관객에게 그곳에서 그려진 그림들을 선물하며 이 아름다운 장면이 끝났다. 한 편의 영화 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엉망진창 전시였다. 예술의 거리가 다시 심장이 뛰고 움직인다.

社説

농어촌 지자체 재정에 전가하는 기본소득사업 안될 일

이재명 국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부담률을 대폭 상향해야 할 상황이다. 한마디로 현행 40%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살림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재정 절벽에 직면한 지역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68개 인구감소지역(郡)단위 중 약 6개 군을 선정,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 동안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공모를 진행했더니, 대상의 71%인 49곳이 접수했다. 무려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일단 한 편이라도 아쉬운 마당이어서 신청서를 내긴 했으나 문제는 이후가 걱정일 수 밖에 없다. 국비 매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부담률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문한 이유다.

대략적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연평균 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방비로는 60%

에 해당하는 4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와 군 간 비율도 사실상 재량에 맡겨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실제로 주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청 자료에 따르면 재정 여건이 충분한 경기도는 60%의 지방비 중 절반인 30%를 떠안은 반면, 전남도는 24%에 머물렀다. 전북도·충북도·경북도·경남도는 18%, 강원도는 12%다. 대구시와 충북도는 아예 거부했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하고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장 많은 전남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도 최다인 14곳이 참여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인데, 향후 돈 먹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행히 송 장관이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말의 기대감이 배어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국가 사업이다. 국비 비중을 70~70%까지 올리고, 시·도와 군 지방비 투입도 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효용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전국에서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성공 안착 가능성 확인한 광주G-패스 정책

광주G-패스가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광주시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카드 장수)은 72만80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월평균 90만101명이다. 건수는 총 8천104만여건(환승 포함)이었다. 1.8% 늘었다. 월평균 1천13만건이다. 금액으로 776억4천822만원, 0.9% 증가했다. 월평균은 97억611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민 모두가 맞춤형 교통비를 지원받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생활 정책으로 G-패스는 도입됐다.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으로 할인하고, 성인은 정부 ‘K-패스’와 연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20%부터 최대 64%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지원율은 19~34세 청년 30%, 35세 이상 일반성인 20%, 저소득층 53%다. 시는 G-패스를 사용하는 청년은 연령을 30세로 확대해 10%, 65세 이상 어르신은 30%, 저소득층은 11%를 더 추가했다.

대중교통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며 안착하고 있다. 미래 세대와 청년,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 교통복지 역할도 톡톡

히 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시기에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단순한 이용자 수 증가를 넘어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

매월 무려 90만여명이 카드를 사용,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1천만건 이상 이용했다. 그리고 100억원에 가까운 교통비를 지출했다. 광주시는 5·18기념주간인 5월17일과 18일 무료 운행과 6월 시내버스 파업이라는 특수상황을 배제하면 월평균 탑승자는 2.8%, 건수는 2.5%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완료되고,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시너지 효과도 충분할 것이다. 시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비용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면 탈수록 더 돌려받았다. 안전성, 정시성 등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승용차 위주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G-패스가 명실상부한 민생 정책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문화난장



이세연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팀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눈에 띄게 바꾸어 놓았다. 클릭 한 번이면 낯선 도시를 탐험하고, 복잡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다. AI로 과제, 음악, 그림까지 만들어낸다. AI 배우가 등장한 광고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세상은 더욱 편리하고 다채로워졌지만, 마냥 좋은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들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반 범죄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N번방, 알페소 사건에 이어 AI를 활용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없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온라인 도박 및 마약 거래까지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나이, 성별, 장소, 시간 등의 제약 없이 누구나 손쉽게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방패, 우리가 만들어야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AI 기반 스미싱 방지 기술 개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불법 성범죄물 차단 및 심의 요청 의무화, 개인 정보 예방 조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 시스템의 접근성은 여전히 낮고, 불법 콘텐츠 삭제 기한이 모호해 실시간 대응에도 한계를 보인다. 더욱이 관련 법안은 사건 발생 이후에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보다 사후 규제에 머무는 현실이 아쉽다.

이러한 제도적 아쉬움을 보완하고, 디지털 환경 속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협약 대응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초록우산을 비롯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관 기관으로 참여해, 디지털 성 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아동 회복 지원과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초록우산은 디지털 불법 콘텐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플랫폼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는 ‘지금, 끝내야 할 때’ 디지털 방패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피해의 심각성과 삭제의 긴급성을 사회에 알리고, 정부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의 주도적인

움직임이자,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아동과 보호자 모두를 위한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다. 우리가 아이에게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 건너라고 가르치듯, 디지털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즐기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들이 유해 콘텐츠를 구별하고 위험을 감지하며, 필요하면 신고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실천 가능한 가이드 제공 등을 통해 보호자뿐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아동의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단지 기술이나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디지털 세계는 아이들의 또 다른 삶의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그 공간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법과 제도를 넘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독자투고

가을 수확철로 접어들면서 도로변에 콩, 참깨를 비롯해 한창 수확중인 벼 탈곡에 농민들의 하루가 바쁜 시절이다. 피땀흘려 가꾼 농산물 수확은 그야말로 농민들의 1년 노사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한해 농사 결실의 기쁨에 앞서 절도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농민들이 장시간에 걸쳐 노력해 수확한 결과물을 일순간에 도난당함으로 인해 농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농가 빈집털이, 농축산물 절도 피해가 예상되면서 경찰에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간 농축산물 절도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 농촌 현실은 출산을 감소하고 더불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가 문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농심 올리는 농축산물 절도 피해 방심은 금물

의 보관 및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린 절도 절도범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두운 야간임에도 지켜보는 사람없는 도로변에 농작물을 건조해 두거나 민가와 떨어진 외딴곳에서 수확물을 건조하는 행위는 절도범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범죄조건이기도 하다. 마을 인접한 곳이라고 농로라고 안심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차량 왕래가 뜸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일수록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촌지역은 도식권에 비해 통행인이 적고 CCTV, 블랙박스 등 치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범죄피해 발생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농산물 절도예방 노력과 더불어 농가에서도

긴 시간 고투여 수확한 농작물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농민들의 깨어있는 자위방법 체제 마련 등 적극적인 방법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농번기 운행이 잦은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에 있어서도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구비하고 운행하는 습관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적재함 뒷면에 야광 반사경과 방향지시등을 부착하는 한편 등화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운행 시 급급제 도로변 가장자리를 주행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피땀 흘린 1년 농사 결실의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농부의 안전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상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극과 극은 통한다

이연례

모진 가위질 거친 기후에
끝내 뜻을 펴지 못하고
메마른 가지 마른 눈물 흘린다
갈길이다른 가지 새봄은 오려나



※ 시작노트
한그루 나무에서 잎이 나지 않고 말라버린 가지를 보며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야 할 가지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사람의 기준과 나무의 기준 차이는 어디까지일까?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